

남성배우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 채 영

(충남대학교)

김 정 득

(충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폭력행위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4개소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기 시작한 남성 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한 설문지 121부 모두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남성 폭력행위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은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심리적 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회피대처 전략을 사용할수록 신체적 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의 빈도가 증가하고, 적대감이 높을수록, 음주문제 정도가 심각할수록 심리적 아내폭력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결혼만족도, 적대감, 음주문제 정도가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행위자 대상의 치료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의 개입에서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결혼의 질 향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아내폭력, 남성폭력행위자, 부부갈등 대처전략, 문제해결대처, 회피대처

1. 서론

2007년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률¹⁾에 관한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0.4%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정폭력 유형가운데 부부폭력은 40.3%로 보고되었는데, 부부폭력 경험자 가운데 심리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 19.6%, 신체적 폭력 11.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외국에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는 1995년 전국음주조사(National Alcohol Survey)에서 5쌍 가운데 1쌍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르웨이의 전국 부부폭력 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10%와 남성의 2%가 심각한 수준의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Haaland et al., 2005; Bo Vatnar and Bjorkly, 2008: 265), 이는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부폭력에는 개인적, 가족 구조적, 사회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적대감, 정신증, 우울성향 등의 정신건강(Maiuro et al., 1988; 이서원, 2003: 10; Snyder and Whisman, 2003)과 음주 및 약물 남용과 같은 과도한 물질사용(Ping-Hsin Chen, 2001; 박병강·김종성, 2001; Brecklin, 2002; Shrah Glavani, 2004; Snow, Sullivan, Swan, Tate and Klein, 2006; 장희숙, 2006; Lee, E. 2007), 원 가족에서의 폭력 경험(Bandura, 1973; Sugarman and Hotalin, 1989; 유만수, 2000; 고미선, 2004; Widom, Schuck and White, 2006; 보건복지부, 2008), 폭력에 대한 인식(Martin, 1988; 유만수, 2000; 이서원, 2003; 장희숙, 2006), 결혼만족정도(Margolin, John and Foo, 1998; Stuart and Holtzworth-Munroe, 2005)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또한 부부폭력의 요인으로서 폭력행위자의 인지행동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부부갈등상황에서 폭력행위자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폭력 남성과 비폭력 남성을 구분 짓는 변수로 문제해결 능력이 확인되었고(Riggs, O'Leary and Breslin, 1990), 아내폭력 남성과 비폭력 남성 간에는 부부갈등을 다루는데 주로 사용하는 인지적 평가(appraisal)와 대처전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규명되었다(Copenhaver, Lash and Eisler, 2000; Copenhaver, 2000: 609). 또한 배우자와의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폭력 남성들은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더 사용하는 반면 폭력 남성들은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ryl, Stith and Bird, 1991), 회피 대처전략이 문제성 음주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신체적 폭력을 발생시키고(Snow 외, 2006), 공격성과 적대감을 매개로 하여 부부폭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밝혀졌다(McCormick and Smith, 1995).

1) 전국단위의 표본 9,847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발생률의 정의를 조사대상의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 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편 가정폭력 혹은 부부폭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편에게 구타당한 아내들에 대한 실태조사연구들,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로 가해자인 남편과 희생자인 아내의 문제를 심리적·사회적으로 다룬 연구들, 아내구타의 지속화 과정에 대한 연구로서 피해여성을 경험적으로 관찰 기술한 연구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적 대책과 지역사회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미숙, 2004). 따라서 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있지만,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을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는 미흡하다. 특히 부부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행동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부부폭력,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아내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더 나아가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인지행동적 요인, 특히 대처전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폭력행위자의 대처 전략에 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여,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 폭력행위자의 특성이나 폭력발생 원인을 도출해 내는 간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부부폭력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인식과 진술의 차이, 또한 폭력행위자 자기보고의 신뢰성 문제 등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쳐 폭력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해 왔다. 심각한 수준의 부부폭력 가운데 94%가 아내폭력이었다는 연구결과들(Dutton, 1992; Bennett, 1995: 760)을 고려할 때, 피해자인 여성이 아닌 폭력행위자인 남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남성 폭력행위자의 인지행동적 요인, 특히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때 보다 실제적인 대처방안 및 예방 전략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Tilley(2002)는 아내폭력문제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으로 문제의 원인이나 발생과정에 초점을 두는 1차 예방모델과 문제에 대한 초기 인식과 대응이라는 2차 예방모델에서 더 나아가,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재활 및 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3차 예방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성 폭력에 의한 여성 피해자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남성들의 변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도 부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개입이 실행되어왔고, 행위자 프로그램의 초점과 전략은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왔다. 향후 남성 폭력행위자의 특성과 폭력발생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증거 기반의 개입 전략이 구축된다면, 이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폭력행위자의 폭력 행위 재발이나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폭력행위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행위자의 부부갈등 대처 전략이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주요 요인들을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남성 폭력행위자의 관점에서 재탐색함으로써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²⁾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아내폭력 발생 상황과 남성 폭력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고, 아내폭력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성 폭력행위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은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아내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행위자 혹은 피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개념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가운데 가정 구성원 한사람으로부터 통제 등의 목적을 위해 자행된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 성적강압, 경제적 폭력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 아동학대, 성인 미혼자녀 학대, 노부모 학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학대 등이 포함된다.

외국의 가정폭력관련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은 'domestic violence', 배우자 학대는 'spouse abuse'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으며, 최근 'Intimate partner violence(IPV)'가 동거인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고미선(2004)은 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잠재적 의도성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불안, 모욕감 등을 조성하는 정서적인 수준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부부폭력이란 이러한 폭력이 부부간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부부간에 상대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의 가정폭력 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이혼·별거기간이 5년 이내, 사별기간이 1년 이내인 기혼부부(결혼한 경험

- 2) 많은 연구에서 '위험요인'은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Samerroff et al., 1983, 1993), '보호요인'은 개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Jessor, 1991; Fraser, 1997; Gilbert, 1997; Jonathan Robert, 2003)이라는 점에 동의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험요인'은 부정적 결과변수(중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보다 위험요인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있는 여성 및 남성)에게 발생된 모든 유형의 폭력행위'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동거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에서 유발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을 부부폭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아내 폭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대처전략의 개념

대처는 개인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반응 간에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Lazarus(1993)에 의하면 '대처는 개인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럽고 압도되는 느낌을 주는 특정한 상황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과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제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요소인 것이다(Rask 외, 2006: 83).

Litman, Stapleton, Oppenheim and Peleg(1983)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재발에 대한 연구에서 대처전략의 개념을 선구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의 관심대상과 주제에 따라 대처에 관한 하위영역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부부폭력에 있어서 대처전략을 관련변인으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서 대처전략의 하위영역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 과 같다.

<표 1> 대처전략의 하위영역

| 선행연구 | 대처전략 하위영역 |
|---|---|
| Lazarus and Folkman(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lem-focused co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lanful problem solving, ② confrontive coping · emotion-focused co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distancing, ④ self-controlling, ⑤ seeking social support, ⑥ accepting responsibility, ⑦ escape avoidance, ⑧ positive reappraisal |
| Giunta and Compas(19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ful problem solving coping · confrontive coping · escape-avoidance coping |
| Snow, Sullivan, Swan, Tate, and Klein(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support coping · problem-focused coping · avoidance coping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의 일환으로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대처전략은 종종 개인적 반응의 태도특성에 따라 나뉘는데, 문제에 초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와 정서에 초점을 두어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

하려는 대처 등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Lazarus and Folkman(1988) 역시 대처의 주요 기능을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로 설명하였는데, 이 두 가지 대처 기능은 8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문제해결형과 지지추구형의 대처전략은 문제 상황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의 해결을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행동이나 좋지 못한 결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반면, 회피형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그 상황에 대한 사고를 모면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문제 상황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반응과 관련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Tobin, Holroyd, Reynold and Wigal, 1989; Lazarus, 1991). 많은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려는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보다 적응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회피 대처 반응은 과음이나 심리적 증상들과 같이 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Koseke, Kirk and Koseke, 1993; Snow, Swan, Raghavan, Connell and Klein, 2003; Sullivan, Meese, Swan, Mazure and Snow, 2005; Snow 외, 2006: 269).

3) 부부갈등 대처전략(coping strategy)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연구자들의 부부폭력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부부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최근 부부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폭력행위자의 인지행동요인이 폭력을 유발시키는 간접적 요인임을 밝혀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처전략이 부부 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몇몇 이론적 모델들에 근거하여 폭력행위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으로 폭력행위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Holtzworth-Munroe(1992)는 부부폭력의 문제를 McFall(1982)의 사회인지모델(Social-Cognitive Model)로 설명하였는데, 이 모델은 인간이 어떻게 특정 행동패턴을 획득하고 유지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써 개입전략의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Bandura, 1997). 사회인지모델에서 “사회적 기술은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임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유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기술은 특정 자극이나 상황적 임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인지과정의 특정단계에서의 유능하지 못한 수행은 다른 단계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부정적 행동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아내폭력 또한 일련의 연속성을 가진 인지과정(①decoding, ②decision making, ③enactment)에서 어느 한 단계 혹은 모든 단계의 정보과정에서 일으키게 되는 결함이나 과오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Copenhaver, 2000: 605).

사회정보과정모델(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에서는 분노감, 공격성, 인지특성과 폭력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분노감이 합리적 인지과정을 방해하고 적대적 귀인양식을 갖게 함으로 부부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Eckhardt et al., 2004; Holtzworth-Munroe and Clements, 2006; Clements and Holtzworth-Munroe, 2008: 353). 한편 Stuart and

Holtzworth-Munroe(2005)는 분노인지모델(cognitive model of anger)에 근거하여 폭력행위자의 분노 인식수준 및 분노 관리 그리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 등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감정은 다양한 행위로 표출될 수 있으며 폭력행위자들이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남성 폭력행위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자기주장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Holtzworth-Munroe, Bates, Smutzler and Sandin, 1997). 뿐만 아니라 부부폭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Clements, Holtzworth-Munroe, Schweinle and Ickes(2007)는 배우자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입능력(empathic accuracy)이 배우자 폭력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남성 폭력행위자는 아내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정확하게 감정이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의 생각과 느낌을 추론하는 것이 매우 부정확할 수 있다. 이처럼 배우자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과 그렇지 않은 남편들 간에는 부부갈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지적 평가(appraisal)와 대처전략에 차이가 있다(Copenhaver, Lash and Eisler, 2000; Copenhaver, 2000: 605).

폭력행위의 특성을 인지행동요인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했던 다양한 이론적 모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분노 감정이나 공격적 인지가 공격적 행동과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정서적 반응들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Ellis, 1962, 1977, 1994),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석은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가져오는 반면,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비합리적 해석은 지나치게 격앙된 혹은 역기능적인 정서반응과 행동으로 표출된다(Beck, 1976, 1999; Beck, Rush, Shaw and Emery, 1979; Clemants and Holtzworth-Munroe, 2008: 352).

이전 연구들에서 폭력행위는 행위자들이 갖는 대처전략과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회피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음주소비 및 문제성 음주와 관련성을 갖게 되며 결국 폭력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Brennan & Moos, 1990; Cooper et al., 1992, Grunberg, Moore and Greenberg, 1998; Johnsen, Laberg and Eid, 1998). McCormick and Smith(1995)의 연구에서도 회피 대처전략은 공격성과 적대감에 관련성을 가지며, 회피성 대처전략이 배우자 폭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4) 남성 폭력행위자의 심리건강특성

남성 폭력행위자의 개인적 특성 혹은 개인적 위험요소로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어왔다. 폭력행위자는 비폭력 남성에 비해 사소한 자극에 쉽게 분노하고 적대감 수준이 높고(Maiuro et al., 1988; 이서원, 2003: 10),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문제성 음주 등의 문제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nyder and Whisman, 2003). 비폭력 집단과 비교한 연구들에서 경계선성, 자기애성, 가학적 공격성, 수동공격성, 반사회적 성향(Beasley and Stotenberg, 1992; Murphy et al., 1993)이 보고되었으며 이 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남성 폭력행위자의 심리건강 특성에 관해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Hamberger and Hastings, 1986, 1988, 1991; Hart, Dutton and Newlov, 1993; Dutton, 1995; 김정인·김시업, 2005: 665)등 성격

장에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폭력행위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장희숙, 2006: 147).

한편 폭력남성의 분노감이나 공격성 등이 부부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유발시키는 예측요인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다(Eckhardt et al., 2004; Holtzworth-Munroe and Clements, 2006; Clements and Holtzworth-Munroe, 2008: 353). 특히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MacDonald, Holmes and Murra, 1997), 폭력행위자는 수치심, 비난, 애착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격노적인 기질을 가지는데, 특히 아동기 때 경험한 수치심, 불안정한 애착의 결합, 폭력 등이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분노, 질투심 등이 폭력적인 행동을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Dutton, 1995, 1998). 한편 O'Leary 외(1994)는 종단연구를 통해 남편의 분노감이나 적대감이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폭력의 예측요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Stuart and Holtzworth-Munroe, 2005: 292).

충동성 또한 음주 후 공격적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높여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Field, Caetano and Nelson, 2004), 이와 관련하여 Stuart and Holtzworth-Munroe(2005)는 충동성이 남성의 분노감과 적대감, 약물남용,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전 선행연구에서 남성 폭력행위자의 약물남용과 결혼만족 등은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 폭력의 예측요인이라는 주장이 일관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남성 폭력행위자의 물질남용이나 음주문제가 아내폭력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음주정도가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Ping-Hsin Chen, 2001; 박병강·김중성, 2001; Brecklin, 2002; Shrah Glavani, 2004; Snow 외, 2006; Lee, E. 2007). 폭력과 음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알코올의 생리학적 이론에서는 개인이 음주를 탈억제(disinhibition) 수단으로 삼아 그동안 내재되었던 폭력성향을 폭력행위로 방출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둘째, 알코올의 심리사회 이론에서는 폭력을 음주의 탓으로 돌리며 일탈을 부인하는(deviance disavowal) 것인데, 즉 음주하면 폭력적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폭력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변명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불화 혹은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부폭력은 종종 음주문제를 수반하는데, 음주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경우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된다. Brecklin(2002)은 폭력행위자의 음주가 배우자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보다 더 심각한 상해와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폭력은 비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 비해서 폭력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1.49배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Martin and Bachman, 1997), Kyriacou와 그의 동료들(1999)의 연구에서도 역시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신체폭력은 피해자의 응급실 방문 비율을 3.5배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Snow 외, 2006: 270-271).

음주가 가정폭력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음주가 부부폭력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초점을 폭력행위자들의 음주문제 재활프로그램에 두고 있다는 점(Gil-Gonzalez, Vives-Cases, Alvarez-Dardet and Latour-Perez, 2006)은 음주가 폭력을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 부부관계특성

부부폭력의 요인에 대해 배우자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패턴을 강조하기도 한다. 가족체계이론에서는 부부생활을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이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체계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부체계는 안정과 균형을 유지시키려 하지만 배우자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결과 긴장상황이 고조됨으로 결국 배우자간의 폭력을 유발시키게 된다.

아내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Martin(1988)은 남성 폭력행위자의 특성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인식태도를 지목하였으며, Hotaling and Sugarman(1986)도 가정에서 가사분담에 대한 남성의 기대가 아내폭력의 위험지표라고 밝혔는데, 우리나라 아내폭력에 관한 연구들(유만수, 2000; 이서원, 2003)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지되었다. 대체로 폭력남편은 아내에게 주로 고압적인 요구행위를 보이고 이에 대해 아내는 철회행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nyder and Whisman, 2003), 또한 이들의 충동성은 분노감과 적대감, 약물남용과 결혼불만족의 정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약물남용과 결혼불만족의 정도는 심리적 아내폭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Stuart and Holtzworth-Munroe, 2005).

한편 심각한 수준의 부부갈등과 낮은 부부만족도는 부부폭력과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어왔지만 이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Murphy et al., 1993; Prince and Arias, 1994).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부부관계와 부부폭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는데, Margolin, John and Foo(1998)는 부부만족도가 부부폭력에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남성 폭력행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관계상의 어려움으로 친밀감형성(Holtzworth-Munroe and Stuart, 1994), 통제력부재(Rosenbaum and Maiuro, 1989), 자기주장기술(Rosenbaum and O'Leary, 1981; Maiuro et al., 1986), 표현능력이나 문제해결기술(Martolin et al., 1988)등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Stith, Green, Smith and Ward(2008)는 부부만족도와 부부폭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32개의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부부만족도가 낮고 심각한 부부갈등이 여성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성인남성 폭력행위자³⁾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에 일대일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6개도와 2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14개소로부터 설문 응답지 121부가 회수되었고, 수집된 모든 자료들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아내폭력

남성배우자의 아내폭력 유형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Hamaby, McCoy and Sugarman(1996)의 갈등전술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 II)를 사용하였다.

CTS II 척도는 심리적 폭력(8문항), 신체적 폭력(12문항), 성적강압(7문항), 상해(6문항), 협상(6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총 20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지난 1년간 한번(1), 지난 1년간 2번(2), 3-5번(3), 6-10번(4), 11-20번(5), 20번보다 많음(6), 1년 전에 일어남(7), 일어난 적 없음(0)으로 구분되는 리커트형 7점 척도이다. CTS II의 점수는 선택된 응답범주의 중심점수(midpoint)를 합산하였으며,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하위척도의 신뢰계수는 심리적 폭력 Cronbach $\alpha = .89$, 신체적 폭력 Cronbach $\alpha = .94$ 이었다.

(2) 독립변수

① 정신건강

정신건강상태는 Symptoms Checklist-90-Revision(Derogatis, 1977)을 김광일 등(1989)이 재표준화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인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 행위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변수인 적대감 6문항과 정신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에서 '아주 심하다(4)'까지의 리커트형 5점 척도이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3) 본 연구조사는 성인남성 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이 89명(73.6%)이고, 자발적 상담요청자는 32명(26.4%)으로 총 121명이다.

의 신뢰계수는 Cronbach α = .847이었다.

② 대처전략

대처전략은 Amirkhan(1990)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평가도구(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신혜진·김창대(2002)가 번안하고 타당도 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K-CSI)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 등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 조금 그렇다 (2), 매우 그렇다(3)의 리커트형 3점 척도이며, 각 하위범주의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경향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신뢰계수는 사회적 지지추구 Cronbach α = .870, 문제해결중심 Cronbach α = .898, 회피중심 Cronbach α = .785이었다.

③ 부부 성 역할인식태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20문항 가운데 이서원(2003)의 연구에서 추출된 6문항을 사용하여 부부의 성 역할인식태도를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정말 그렇다(4)의 리커트형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 권위적 성 역할인식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부 성 역할인식태도 척도의 신뢰계수는 Cronbach α = .799이었다.

④ 결혼만족도

결혼, 배우자, 부부관계 등 결혼의 질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chumm(1986)의 캔사스 결혼만족도 척도(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를 박성은(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가 '최고로 불만족(1)'에서 '최고로 만족(7)'까지인 리커트형 7점 척도로서, 높은 점수는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준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44이었다.

⑤ 음주문제

음주문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를 사용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경험한 음주 빈도, 음주량, 폭음정도, 알코올의존 증상, 음주 관련 문제 등을 측정하며, 10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이다(Babor 외, 1989).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Babor 외, 2001). 본 연구에서 음주문제 척도(AUDIT)의 신뢰계수는 Cronbach α = .898이었다.

3) 분석방법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부부간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방법을 위해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 연령 | 20대 | 2 | 1.7 | 118(100.0) |
| | 30대 | 37 | 31.4 | |
| | 40대 | 53 | 44.9 | |
| | 50대 | 21 | 17.8 | |
| | 60대 이상 | 5 | 4.2 | |
| 학력 | 무학 | 1 | 0.8 | 118(100.0) |
| | 초등학교 중퇴·졸업 | 3 | 2.5 | |
| | 중학교 중퇴·졸업 | 20 | 16.9 | |
| | 고등학교 중퇴·졸업 | 54 | 45.8 | |
| | 전문대 중퇴·졸업 | 14 | 11.9 | |
| | 대학교 중퇴·졸업 | 17 | 14.4 | |
| |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 9 | 7.6 | |
| 결혼상태 | 기혼(초혼) | 74 | 61.7 | 120(100.0) |
| | 기혼(재혼) | 11 | 9.2 | |
| | 별거 | 19 | 15.8 | |
| | 이혼 | 9 | 7.5 | |
| | 동거 | 7 | 5.8 | |
| 근무형태 | 무직 | 13 | 11.0 | 118(100.0) |
| | 일용직 | 14 | 11.9 | |
| | 임시직 | 8 | 6.8 | |
| | 정규직 | 51 | 43.2 | |
| | 자영업 | 28 | 23.7 | |
| | 기타 | 4 | 3.4 | |
| 월평균소득 | 100만원 미만 | 13 | 11.3 | 115(100.0) |
| | 100-200만원 미만 | 37 | 32.2 | |
| | 200-300만원 미만 | 28 | 24.3 | |
| | 300-400만원 미만 | 20 | 17.4 | |
| | 400-500만원 미만 | 7 | 6.1 | |
| | 500만원 이상 | 10 | 8.7 | |

연령분포는 40대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1.4%, 50대 17.8%, 60대 4.2%, 20대 1.7%의 순이었고 최저연령이 28세이고 최고연령은 65세였다. 평균 연령은 43.72세이다. 이는 2007년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피해자 대상의 조사결과, 즉 40대 39.7%, 30대 35.4%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79.7%, 전문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은 3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폭력행위자의 교육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했는데 교육정도가 낮은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는 연구(Straus and Gelles, 1990; 김계엽, 1998)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폭력행위자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상태와 관련해서 기혼자가 전체의 70.9%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 가운데 재혼이 9.2%였다. 그 밖에 별거는 15.8%, 이혼 7.5%, 동거 5.8%의 순이었다. 배우자의 국적은 대부분이 대한민국이었으며, 기타 응답자로 중국인 2명과 일본인 1명이 포함되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자영업이 23.7%로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월 평균 소득에 있어서도 100-200만원미만의 소득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미만 24.3%였다. 3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2.2%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1.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폭력피해자 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데 피해자의 응답 결과는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전체의 32.8%였으며, 300만원이상의 소득은 전체의 16%였다.

2)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에 투입된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 적대감 | 정신증 | 지지 추구 | 문제 해결 | 회피 대처 | 성역할 인식 | 결혼 만족 | 음주 정도 | 심리 폭력 | 신체 폭력 |
|-------|-------|--------|--------|--------|---------|--------|---------|---------|--------|--------|
| 심리 | 적대감 | 1 | | | | | | | | |
| 건강 | 정신증 | .704** | 1 | | | | | | | |
| 대처 전략 | 지지추구 | .073 | .038 | 1 | | | | | | |
| | 문제해결 | -.030 | -.047 | .622** | 1 | | | | | |
| | 회피 | .343** | .375** | .241** | -.035 | 1 | | | | |
| 부부 관계 | 성역할인식 | .262** | .214* | -.078 | -.059 | .119 | 1 | | | |
| | 결혼만족 | -.233* | -.233* | -.016 | .147 | -.083 | -.270** | 1 | | |
| 음주 | 음주정도 | .285** | .245** | .091 | .024 | .130 | .104 | -.166 | 1 | |
| 종속 변수 | 심리폭력 | .421** | .272** | -.076 | -.254** | .183* | .247** | -.405** | .282** | 1 |
| | 신체폭력 | .277** | .331** | -.049 | -.056 | .265** | .221* | -.351** | .168 | .487** |

*p<.05 **p<.01 ***p<.001

첫째, 심리건강 관련요인으로 적대감과 정신증이 폭력행위자의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심리적 아내폭력에는 적대감($r=.421, p<.01$)이 정신증($r=.272, p<.01$)에 비해 좀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체적 아내폭력에는 적대감($r=.277, p<.01$)에 비해 정신증($r=.331, p<.01$)이 보다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회피대처는 적대감($r=.343, p<.01$)과 정신증($r=.375, p<.01$)이, 부부관계 변수가운데 성 역할인식태도 역시 적대감($r=.262, p<.01$)과 정신증($r=.214, p<.05$)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은 적대감($r=-.233, p<.01$)과 정신증($r=-.233, p<.01$)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부부간에 결혼만족의 정도가 낮을 경우 적대감을 많이 느끼거나 정신증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음주정도는 적대감($r=.285, p<.01$), 정신증($r=.245,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처전략 관련요인으로 심리적 아내폭력과 문제해결대처($r=-.25, p<.01$)가 부적 상관관계가, 심리적 아내폭력과 회피대처($r=.183, p<.05$)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아내폭력과 회피대처($r=.265, p<.01$)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대처전략이 심리적 아내폭력과 관련성을 가지며 특히 위험요인들의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피대처전략은 신체적 아내폭력이라는 위험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피대처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공격성과 적대감의 수준이 높고 회피대처가 아내폭력을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McCormick and Smith, 1995; Snow 외, 2006: 279)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부부관계 관련요인으로 성 역할인식태도는 심리적 아내폭력($r=.247, p<.01$)과 신체적 아내폭력($r=.221, p<.05$)이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데, 결과적으로 남성폭력 행위자의 권위적 성 역할 인식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의 결혼만족 정도는 심리적 아내폭력($r=-.405, p<.01$)과 신체적 아내폭력($r=-.351, p<.01$)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즉 남성폭력 행위자의 결혼만족 정도 낮을 경우 아내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어, 결혼만족 정도가 아내폭력의 보호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볼 때 부부간의 낮은 결혼만족도 수준과 남성 폭력 행위자의 성 역할인식태도 등이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음주요인으로 분석에 투입된 폭력행위자의 음주정도는 심리적 아내폭력과 정적 상관관계($r=.282, p<.01$)를 가짐으로 아내에 대한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음주요인이 신체적 아내폭력($r=.168$)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선행연구들에서 부부폭력관련변인으로 제시되었던 인구학적 변수들⁴⁾, 즉 연령이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은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밝혀진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보

4) 인구학적 변수들은 분석을 위해 비율변수로 재코딩 되었는데, 연령은 만나이로 교육수준은 학업연수를 비율점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아내폭력에 문제해결대처전략과 결혼만족의 정도는 보호요인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적대감, 정신증, 회피대처, 성역할인식, 음주 등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체적 아내폭력에 있어서는 결혼만족의 정도가 보호요인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적대감, 정신증, 회피대처, 성역할 인식 등이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각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심리건강 변수로 사용된 적대감과 정신증($r=.704$)이 대처전략 변수 가운데 지지추구대처와 문제해결 대처($r=.622$)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예상되는 정신증, 지지추구대처 변수는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변수를 제외한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적합도, 선형성 가정 등을 충족시켰다. Du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심리폭력 회귀모형이 1.765, 신체폭력 회귀모형이 2.091로 오차항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분산팽창계수(VIF)는 1.1에서 2.1 사이에 분포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 역시 .7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3) 심리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폭력행위자의 심리적 아내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모델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학력수준과 평균소득이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심리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II에서는 남성 폭력행위자의 정신건강요인인 적대감과 음주정도가 심리적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아내에 대한 적대감($p<.001$)과 폭력행위자의 음주정도($p<.05$)가 클수록 심리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남성폭력 행위자의 적대감과 음주정도는 아내에 대한 심리적 폭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 모델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6.1%인데, 이는 모델 I에 비해 설명력은 23.3% 향상되었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모델 III에서는 부부관계 요인으로 성 역할인식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p<.01$)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델 II의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던 적대감과 폭력행위자의 음주정도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적대감의 경우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p<.01$)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부간 심리폭력의 가능성이 커지며 결혼만족의 정도가 다른 위험요인들이 아내에 대한 심리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부부관계요인이 추가된 모델 III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4.0%인데, 이는 이전 모형에 비해 7.9%의 설명력이 향상된 것이며, 본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IV에서는 심리적 아내폭력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대처전략 요인 즉 문제해결대처와 회피대처가 투입되었는데 문제해결대처가 심리적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볼 때 폭력행위자들이 대처전략으로 문제해결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아내에 대한 심리적 폭력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전 모델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밝혀진 결혼 만족도의 영향력(p<.05)이 다소 감소되었지만 적대감(p<.01)과 음주정도(p<.05) 모두 여전히 심리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처전략요인이 추가된 이 모델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9.3%이며 이전모델에 비교할 때 설명력은 5.3% 향상되었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심리적 아내폭력 요인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 | 모형 | 1 | | 2 | | 3 | | 4 | |
|------------|---------|--------|-------|----------|----------|----------|----------|----------|----------|
| | | B | t | B | t | B | t | B | t |
| 인구학적 요인 | (상수) | -3.146 | -.145 | -23.095 | -1.164 | .130 | .005 | 26.638 | 1.010 |
| | 연령 | .212 | .607 | .192 | .624 | .032 | .106 | .002 | .007 |
| | 학력수준 | 1.579 | 1.638 | 1.607 | 1.850 | 1.284 | 1.538 | 1.572 | 1.898 |
| | 평균소득 | -1.964 | -.954 | -2.179 | -1.199 | -1.584 | -.908 | -1.076 | -.625 |
| 정신건강 요인 | 적대감 | | | 2.478 | 4.213*** | 2.033 | 3.505** | 1.927 | 3,235** |
| | 음주정도 | | | .724 | 2.589* | .610 | 2.266* | .690 | 2.630* |
| 부부관계 요인 | 성역할의식태도 | | | | | .773 | .998 | .523 | .692 |
| | 결혼만족도 | | | | | -1.790 | -2.992** | -1.426 | -2.402* |
| 대처전략 요인 | 문제해결대처 | | | | | | | -1.368 | -2.933** |
| | 회피대처 | | | | | | | -.046 | -.081 |
| R2 변화량 | | .028 | | .261 | | .340 | | .393 | |
| | | | | .233 | | .079 | | .053 | |
| F | | .987 | | 7.205*** | | 7.359*** | | 7.058*** | |

*p<.05 **p<.01 ***p<.001

4) 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폭력행위자의 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모델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학력수준과 평균소득이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II에서는 남성 폭력행위자의 정신건강요인인 적대감과 음주정도가 신체적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아내에 대한 적대감(p<.01)이 클수록 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리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

던 남성 폭력행위자의 음주정도는 아내에 대한 신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모델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3.8%인데, 이는 모델 I에 비해 설명력은 10.2% 향상되었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모델III에서는 부부관계 요인으로 성 역할인식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결혼만족의 정도가 신체적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p < .05$)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델II의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던 적대감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p < .05$)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아내에 대한 적대감이 클수록, 그리고 결혼만족의 정도가 낮을수록 신체적 아내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부부관계요인이 추가된 모델III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0.4%인데, 이는 이전 모형에 비해 6.6%의 설명력이 향상된 것이며, 본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p < .01$ 수준에서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IV에서는 신체적 아내폭력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대처전략 요인 즉 문제해결대처와 회피대처가 투입되었는데 회피대처가 신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모델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밝혀진 결혼만족 정도가 여전히 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IV에서는 이전 모형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예측되었던 적대감은 대처전략 요인이 추가로 투입되자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단계에서 유의미한 변인이 다음 모델에서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는 새로 투입된 변인의 영향력이 이전 변수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정도로 압도할 경우라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폭력행위자가 대처전략으로 회피대처를 사용할수록 신체적 아내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회피대처는 신체적 아내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처전략요인이 추가된 이 모델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3.8%이며 이전모델에 비교할 때 설명력은 3.4% 향상되었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 신체적 아내폭력 요인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 | 모형 | 1 | | 2 | | 3 | | 4 | |
|------------|---------|--------|--------|---------|---------|---------|---------|---------|---------|
| | | B | t | B | t | B | t | B | t |
| 인구학적 요인 | (상수) | 5.604 | .554 | .179 | .018 | 7.640 | .617 | -3.242 | -.235 |
| | 연령 | .187 | 1.151 | .179 | 1.150 | .110 | .719 | .151 | .993 |
| | 학력수준 | .096 | .212 | .079 | .179 | -.071 | -.165 | -.272 | -.619 |
| | 평균소득 | -1.401 | -1.461 | -1.453 | -1.582 | -1.203 | -1.343 | -.917 | -1.014 |
| 정신건강 요인 | 적대감 | | | .835 | 2.813** | .634 | 2.129* | .432 | 1.385 |
| | 음주정도 | | | .172 | 1.214 | .124 | .896 | .101 | .727 |
| 부부관계 요인 | 성역할의식태도 | | | | | .467 | 1.174 | .450 | 1.135 |
| | 결혼만족도 | | | | | -.702 | -2.284* | .771 | -2.475* |
| 대처전략 요인 | 문제해결대처 | | | | | | | .099 | .404 |
| | 회피대처 | | | | | | | .615 | 2.047* |
| R2 | | .036 | | .138 | | .204 | | .238 | |
| R2 변화량 | | | | .102 | | .066 | | .034 | |
| F | | 1.291 | | 3.233** | | 3.634** | | 3.372** | |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남성 폭력행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특히 남성 폭력행위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에 초점을 두어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이들 요인들은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었다.

연구결과 폭력행위자의 대처전략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되었는데, 특히 폭력행위자의 문제해결대처는 심리적 아내폭력의 보호요인으로 회피대처는 신체적 아내폭력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부부결혼만족도가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의 보호요인으로, 반면 아내에 대한 적대감은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요인은 심리적 아내폭력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행위자의 대처전략은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문제해결대처는 심리적 아내폭력에, 회피대처는 신체적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처전략과 문제성 음주가 부부폭력에 관련성을 가지며, 회피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문제성 음주를 매개하여 부부의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Snow 외(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폭력행위자의 정신건강 요인으로 아내에 대한 적대감과 부부관계 요인인 결혼만족도가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음주요인은 심리적 아내폭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2007년도 우리나라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 연구결과에서 가정폭력을 유발시키는 많은 변인들⁵⁾ 가운데 결혼생활만족도와 음주정도가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셋째,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어왔던 음주요인은 부부간의 심리폭력에 영향을 줄 뿐 신체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traus and Sweetow(1992)의 미 전국 확률표집 대상 연구에서 술에 취한 횟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에 대해 심리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을 지지하였지만, Leonard and Quigley(1999)의 연구에서 남편의 음주가 언어와 신체 폭력 모두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지지하지 못하였다(Snow 외, 2006: 270).

넷째, 이 밖에도 선행연구들에서 부부폭력 관련변인으로 제시되었던 요인들 가운데 인구학적 변수들(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은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남성폭력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의 부부폭력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폭력의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폭력행위자 및 피해자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부부폭력,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아내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더 나아가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부폭력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탐색과 남성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예방 및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부부폭력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폭력피해자의 재활 및 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두

5) 2007년도 우리나라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 연구결과에서 가정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농촌 거주, 혼인상태, 아내의 연령과 교육수준, 아내의 취업여부, 부부의 아동기 가족 폭력경험, 부부권력구조, 남편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스트레스 강도, 그리고 남편의 자기 통제력과 생활 및 결혼 생활 만족도, 음주정도, 부부의 교육수준 등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는 삼차적 예방모델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부부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프로그램은 피해자 중심의 사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자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개입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행동요인으로 폭력행위자의 대처전략이 매우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폭력행위자의 대처전략은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문제해결대처는 심리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회피대처는 신체적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심리적 아내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회피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가질수록 신체적 아내폭력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지 이론의 사회정보과정 모델에서 남성 폭력행위자에 대한 개입의 초점은 갈등해결기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남성 폭력행위자들에게 자기주장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프로그램에 매우 유용한 함의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폭력행위자에 대한 개입은 인지행동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기주장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갈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에 변화(문제해결 대처를 지향하고 회피대처를 줄이도록)를 주도록 도와줌으로 심리문제, 대인관계문제, 음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처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이 음주남용과 폭력행위의 재발방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Chung, Langenbucher, Labouvie, Pandina and Moos, 2001).

셋째,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어왔던 음주요인은 심리적 아내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남성의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은 곧 음주문제의 재활프로그램으로 귀결되고 있다(Gil-Gonzalez 외, 2006)는 점에서 아내 혹은 부부폭력에 있어서 음주요인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하다.

많은 연구자들은 음주상태에서는 통제력이 감소하고 배우자의 행동과 언어를 왜곡해서 받아들임으로 결국 폭력적 행동을 쉽게 유발시키며,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보다 더욱 더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이후 음주의 패턴을 결정짓는데 개인의 대처전략이 매우 의미 있는 요인임을 밝혀냈다(Rask 외, 2006). 따라서 폭력행위자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은 음주 및 약물의 남용을 함께 다루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동시에 음주 및 약물 치료프로그램에서도 치료대상자의 대처전략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제까지 부부간에 언어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위협이나 불안, 모욕감 등을 조성하는 심리적 폭력에 대해 그 심각성이 간과되어왔다. 심리적 폭력은 결혼만족도와 신체폭력, 그리고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며(O'Leary and Jouriles, 1994; Follingstad 외, 1990; Arias 외, 1997; Ro and Lawrence, 2007: 575), 신체적 폭력보다 폭력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신체적 폭력은 종종 심리적 폭력에 뒤이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예방 및 치료개입에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Follingstad, Rutledge, Berg, Hause and Polek, 1990;

Arias and Pape, 1999; Snow 외, 2006: 268)해왔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볼 때 폭력행위자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에 있어서 심리적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 심각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개입에서 정서적·심리적 치료 상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데, 추후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선정되었고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가 적은 점 ($n=121$)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남성 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종종 폭력행위자와 피해당사자간의 인식과 진술의 차이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Straus and Gelles(1990)에 의하면,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폭력행위를 실제 발생건수보다 적게 보고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폭력행위의 비율은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적어도 2배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김재엽, 2007). 따라서 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양자가 모두 조사대상자로 참여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때 보다 정확한 분석과 함의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폭력행위자의 인지행동요인이 부부간의 폭력에 미치는 직접적 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부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인지행동요인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등 간접적 요인으로 분석될 때 더욱 더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행위자의 인지행동요인이 부부간의 폭력에 간접적 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미선. 2004. “아동기 가정폭력의 경험이 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인·김시엽. 2005. “아내구타와 그 가해자-구타과정 및 가해자 심리·행동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653-676.
- 김재엽. 2007.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 김재엽·이지현. 2008. “한국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중도탈락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31-251.
- 박병강·김중성. 2001. “알코올 의존환자들의 가정폭력.” 『충남의대잡지』 28(2):481-489.
- 박성은. 1998.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앙심, 가사분담, 결정권,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진.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만수. 2000. “성장기 부부폭력관찰경험, 성역할 인식,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정도가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 미치는 영향연구-가정폭력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채영. 2007. “문제성 음주의 의사결정균형이 변화단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5: 99-130.
- 이서원. 2003.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희숙. 2006. “지역사회의 폭력남편과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의 특성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8(4): 141-168.
- 조미숙. 2002. “가정폭력가해자의 알코올 중독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 학회지』 3(1): 102-110.
-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가정폭력실태보고서』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2nd ed.*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1-60.
- Bennett, L. W. 1995. “Substance Abuse and the Domestic Assault of Womens.” *Social Work* 40(6): 760-771.
- Bo Vatnar, S. K. and Bjorkly, S. 2008.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Help-seeking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265-279.
- Brecklin, L. R. 2002. “The Role of Perpetrator Alcohol Use in the Injury Outcomes of Intimate Assaul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3): 185-197.
- Caetano, R., S. Ramisetty-Mikler., and T. R. Harris. 2008. “Drinking, Alcohol Problem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hite and Hispanic Couples in the U.S.:Longitudinal Associatio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37-45.
- Chung T., J. Langenbucher., E. Labouvie., R. J. Pandina., and R. H. Moos. 2001. “Changes in alcoholic patients’ coping responses predict 12-month treatment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1): 92-100.
- Clements, K., A. Holtzworth-Munroe., W. Schweinle., and W. Ickes. 2007. “Empathic accuracy of intimate partners in violent versus nonviolent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4: 369-388.
- Clements, K., and A. Holtzworth-Munroe. 2008. “Aggressive Cognitions of Violent Versus Nonviolent Spouses.” *Cognitive Therapy Research*. 32: 351-369.
- Copenhaver M. M. 2000. “Testing a Social-Cognitive Model of Intimate Abusiveness Among Substance-Dependent Males.” *AM. J. DRUG ALCOHOL ABUSE*. 26(4): 603-628.
- Field, C. A., R. Caetano., and S. Nelson. 2004. “Alcohol and Violence Related Cognitiv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petr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4): 249-253.
- Folkman, S., R. S. Lazarus., R. J. Gruen, and A. DeLongis.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71-579.
- Gil-Gonzalez, D., C. Vives-Cases., C. Alvarez-Dardet., and J. Latour-Perez. 2006. “Alcohol and intimate

- partner violence: do we have enough information to act?"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6(3): 278-284.
- Giunta, C. T. and B. E. Compas. 1993. "Coping in Marital Dyads: Patterns and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1011-1017
- Gondolf, E. W. 1999. "Characteristics of Court-Mandated Batterers in Four Cities Diversity and Dichotomies." *Violence Against Women*. 5(11): 1277-1293.
- Holtzworth-Munroe, A. 2000. "Cognitive Factors in Male Intimate Viol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2): 135-138.
- Holtzworth-Munroe, A., Bates, L., Smutzler, N., and Sandin, E. 1997. "A brief review of the research on husband violence: Part I: Maritally violent versus nonviolent me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 65-99.
- Hotaling, G. T., and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2): 101-124.
- Johnsen, B. H., Laberg, J. C., and Eid, J. 1998. "Coping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a military unit."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163(9): 599-602.
- Jonathan Robert, O. 2003. "An ecological risk/protective factor approach to understanding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The Univ of Wisconsin - Madison. Doctor of Philosophy Dissertation.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8. *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 Lee, E. 2007. "Domestic Violence and Risk Factors among Korean Immigr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 141-149.
- Logan, T. K., R. Walker., M. Staton., and C. Leukefeld. 2001. "Substance Use and Intimate Violence Among Incarcerated Mal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2): 93-114.
- Margolin, G., R. S. John., & L. Foo. 1998. "Interactive and Unique Risk Factors for Husband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of Their Wives." *Journal of violence*. 13(4): 315-344.
- McCormick, R. A., and Smith, M. 1995. "Aggression and Hostility in substance abusers: The relationship to abuse patterns, coping style, and relapse triggers." *Addictive Behaviors*. 20: 555-562
- Mihalic, S. W., and D. Elliott.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1): 21-47.
- PING-HSIN CHEN. 2001. "The role of Alcohol use in Intimate Partners Violence among men and women." Univ of New Jersey. Doctor of Philosophy Dissertation.
- Prince, J. E., and I. Arias. 1994.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and the nonabusive husband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26-134.
- Rask, M. B., T. Jorgensen., J. P. Jensen., K. B. Jorgensen., M. Madsen., B. Nielsen., A. N. Anderson., A. S. Nielsen., and M. Gronbaek. 2006. "Influence of Pretreatment Coping Strategies on the Outcome of Outpatient Treatment of Danish Alcohol Abusers." *European Addiction Research* 12: 83-90.
- Ro, E., and Lawrence, E. 2007. "Comparing Three Measures of Psychological Aggression: Psychometric Properties and Differentiation from Negative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 Violence*, 22: 575-586.
- Snow, D. L., T. P. Sullivan., S. C. Swan., D. C. Tate., and I. Klein. 2006. "The Role of Coping and Problem Drinking in Men's Abuse of Female Partners: Test of a Path Model." *Violence and Victims*. New York: Jun 2006, 21(3): 267-286.
- Snyder, D. K., and M. A. Whisman. 2003. "Treating Difficult Couples: Helping Clients with Coexisting Mental and Relationship Disorders." *Physical Aggression(201-230)*. New York : Guilford Press.
- Stith, S. M., N. M. Green., D. B. Smith., and D. B. Ward. 2008.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Discord as Risk Marke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149-160.
- Straus, M. A., S. L. Hamaby., S. B. McCoy., and D. B. Sugarman.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uart, G. L., and A. Holtzworth-Munroe. 2005. "Testing a Theoretic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Mediating Variables, and Husband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5): 291-303.
- Tilley, D. D. S. 2002. "The development of violence in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s: grounded theory development." Univ of Texas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Doctor of Philosophy Dissertation.
- Ungerson, C. 1995. "Gender, Cash and Informal Care: European Perspectives and Dilemmas." *Journal of Social Policy* 24(1): 31-52.
- Widom, C. S., A. M. Schuck., and H. R. White. 2006. "An Examination of Pathways from Childhood Victimization to Violence: The Role of Early Aggression and Problematic Alcohol Use." *Violence and Victims*. 21(6): 675-690.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산하 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 www.niaaa.nih.gov/guide
- <http://www.emory.edu/EDUCATION/mfp/eff.html>.
- <http://www.idea.org/page110.html>.

A Study on the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of Male Abusive Behavior on Intimate Female Partner Violence

Yoo, Chai-Yo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m, Jung-Deuk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ose factors affecting Male Abusive Behavior on Intimate Female Partner Violence.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coping strategies of male abusive behavior. The sample included 121 male abusive behavior who are referred by Counsel for Family Violence. For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employed.

Results indicated that male abusive behavior expressed more aggressive cognitive biases and irrational beliefs than nonviolent men. Both of problem-solving and avoidance coping to deal with relationship conflicts were related to abusive behavior of male. Specially, men who used higher levels of avoidance coping strategies was more likely related to physical abuse, less use of problem-solving coping was related to psychological abuse. Hostility and low marital satisfaction have also been associated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Drinking is a risk factor for psychological abuse. Results are discussed implication for developing theoretical and interventional meanings of social welfare practice.

Key words: Intimate Female Partner Violence, male abusive behavior, coping strategies, problem-solving and avoidance coping.

[논문 접수일 : 2009년 2월 1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4월 16일]